동계 불모지, 전남체육 희망 쏘다…역대 최고성적 거둬

동계체전 폐막…전남 역대 최고 득점·최다 메달·최고 순위

종합 7위로 마무리…화순초 6학년 조다은 '5관왕' 달성

2년 만에 개최된 제103회 전국동계체전에서 전남선수단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메달잔치를 벌였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분산 개최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등 총 32개(산악시범종목포함)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득점 314점, 종합 순위7위로 역대 최고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이 결과로 전남체육은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참가한 제77회 전국동계체전부터 이번 대회까지 출전 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고, 가장 높은 종합득점 기록하여 10년 만에 종합 순위 7위(2012년 93회 총 메달 10개)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 전남선수단은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명 등 다양한 종목에서 다관왕을 다수 배출하며 동계 불모지에서 신흥 강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 101회 대회 당시 3관왕을 달성한 조다은(화순초 6년)은 스키 크로스컨트리(여자13세이하부)에서 클래식 3km, 프리 4km, 6km 계주, 복합, 0.7km 스프린트 등 5개의 세부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5관왕을 달성했다.

전남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스키 알파인의 강다현(여수죽림초 6년)도 여자13세이하부에서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에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고 복합기록에서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4관왕에 등극했다.

이어 베이징올림픽에 출전 후 바로 대회에 참가한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의 티모페이 랍신과 예카테리나 압바쿠모바(석정 마크써밋)도 나란히 4관왕과 3관왕을 달성했다.

랍신은 스프린트 10km, 집단출발 15km, 22.5km 계주, 혼성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에카테리나도 스프린트 7.5km, 집단출발 12.5km, 혼성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다관왕 멤버에 이름을 올렸다.

스키 크로스컨트리는 계주에서 남자13세이하부와 여자13세이하부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13세이하부 8km 계주에서는 강현성, 남지훈, 박시후, 이지후(화순초)가, 여자13세이하부 6km 계주는 조다은, 김제이(이상 화순초), 최나연(다시초)이 각각 금메달을 합작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 외에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로 보상받은 선수들도 있다.

조다은(화순초 6학년)

강다현(여수죽림초 6학년)

이지후(화순초, 남자13세이하부)와 전다경(화순제일중, 여자16세이하부)은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각각 은메달 4개를 획득했고, 남자16세이하부 계주에서는 선진우(장흥안양중), 정한성, 전형조(이상 화순제일중)가 단체전 은메달, 박시후(화순초, 남자13세이하부)는 동메달 2개를 따내며 다음 대회 금빛메달을 기대하게 했다.

또한 컬링 여자16세이하부에 출전한 망운중학교는 동메달, 빙상 피겨스케이팅의 이지우(여수웅천중)가 싱글D조에서 동메달, 산악(시범종목)의 이영건(나루터클라이밍짐)도 아이스클라이밍 리드 은메달 1개, 스피드 동메달 1개, 바이애슬론 전남체육회팀의 추경미(전남체육회), 조인희(전남바이애슬론연맹), 김승교(석정마크써밋)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를 아름답게 마무리 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체육은 그동안 도내 설상 훈련장 부재 및 열악한 환경으로 동계종목 불모지로 불리며 매번 중하위권에만 머물던 전남체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재무 회장 취임 후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을 창단하여 전국 최고의 국가대표급 멤버를 구성했고,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 등 꾸준한 협업을 통해 학생·실업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연계육성중인 스키 크로스컨트리팀(화순초-화순제일중)의 대회 다관왕 다수 배출을 통해 연계육성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으며 결실을 맺게 됐다.

현재 초-중으로 이어진 크로스컨트리팀의 고등부 부재, 바이애슬론팀의 학생팀 부재, 빙상종목 선수육성 확대 등을 아쉬움으로 남겨 스포츠클럽팀의 창단 등 저변확대의 과제를 남겼다.

김재무 회장도 "코로나 19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를 위해 우리 선수들은 그 동안 누구보다 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준비했고, 타 시·도보다 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도자와 선수들이 모여 함께 만든 땀의 결실이다."며 "다시한번 목표 성적을 달성한 우리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동계스포츠 육성 및 선수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전라남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체육회는 전남체육이 동계종목 불모지에서 신흥 강자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계육성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여자배구 현대건설, 최고 승률 정규리그 1위 가시권

내일 GS칼텍스전 승리 시 최고 승률(90.62%) 정규리그 1위 확정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이 작전지시를 하고 있다.

무려 90%가 넘는 승률을 기록중인 현대건설이 다시 한 번 정규리그 1위에 도전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도로공사와의 홈경기에서 3-2(25-19 25-22 25-27 20-25 15-10)로 진땀승을 거뒀다.

시즌 28승 3패(승점 82)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 중인 현대건설은 승점 '1'이 모자라 통산 4번째 정규리그 정상 등극과 챔피언결정전 티켓 확보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은 개막 12연승을 올리면서 우승 후보로 부상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7일 도로공사에 시즌 첫 패배를 당한 이후 다시 연승 가도를 달려 여자부 신기록인 15연승을 기록하는 등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다.

현대건설은 오는 4일 안방에서 리그 3위 GS칼텍스와 상대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GS칼텍스와 상대전적에서 5전 전승을 올렸다.

현재 현대건설의 승률은 90%가 넘는다. 현대건설은 GS칼텍스에 또다시 승리한다면, 여자부 역대 가장 높은 승률(90.62%)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팀으로 역사에 남는다.

또한 사상 최초로 한 시즌 30승, 승점 90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GS칼텍스전에 패하더라도 두 세트만 따내면 1위를 거머쥘 수도 있다.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은 도로공사전에서 승리한 후 "GS칼텍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셀 거 같다. 빨리 (경기력과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100%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 코로나19 등 변수가 많아서 빨리 1위를 결정하고, 우리 페이스대로 포스트시즌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정규리그 1위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대건설 레프트 황민경은 "빨리 1위가 확정되면 좋지만,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괜찮다. 이제 승점 '1점'이 남았는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세터 김다인은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아서 지금은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내려놨다. 한경기, 한경기 이기기 위해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2019~2020시즌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가 다음 시즌에 최하위로 떨어진 후 다시 1위로 복귀하는 이색적인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위 확정 시 흥국생명(2016~2017시즌 1위→2017~2018시즌 최하위→2018~2019시즌 1위)에 이어 두 번째다.

최민정

심석희

최민정·심석희 '불편한 한솥밥'

진천선수촌 입촌…이달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출전 위해 훈련 돌입

한국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2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입촌 훈련에 돌입한다.

동료 선수 험담으로 징계를 받은 심석희(서울시청)가 해제 후, 복귀하면서 험담의 피해자였던 최민정(성남시청)과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됐다.

둘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을 이끄는 쌍두마차였지만 지난해 10월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내 한 코치와 최민정 등 다른 동료들을 험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들을 분리 조치했고, 12월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심석희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불편한 사이인 둘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사이 최민정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해 1500m 올림픽 2연패와 1000m, 3000m 계주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지난달 20일 징계가 만료된 심석희가 대표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최민정 역시 정상적으로 합류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

심석희가 앞서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면이 있어 '원 팀'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또 다른 험담 피해자 김아랑(고양시청)도 복귀 예정이나 2일 입촌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계선수권대회는 18~2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러시아서 뛰는 황인범 운명은…국제축구선수협 "떠날 자유 줘야"

FIFA·UEFA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로 러시아클럽 소속 외국인선수 피해

국제축구연맹(FIFA), 유럽축구연맹(UEFA)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국가대표팀, 러시아 소속 클럽의 모든 주관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가운데 러시아 리그 소속 외국인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2일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의 클럽에 소속된 외국인선수들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FIFA에 계약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스포츠계는 러시아 퇴출을 연이어 선언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제대회에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의 선수, 임원을 배제하라고 권고했고, FIF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연맹들이 따르고 있다.

FIFPRO는 일부 제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러시아 클럽의 외국인선수에 대해 "러시아 클럽에는 133명의 외국인 선수가 소속돼 있다"며 '떠날 자유'를 요구했다.

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도 해당된다. 황인범은 2020년 8월부터 러시아 카잔을 연고지로 한 루빈 카잔에서 뛰고 있다.

루이 에버라드 FIFPRO 이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맞춰 러시아 클럽에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매우 우려해야 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선수에게 러시아를 떠날 자유를 줘야 한다"고 보탰다.

김훈기 한국 선수협 사무총장도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어 우리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FIFPRO와 각 유럽 선수협과 함께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1995년 이후 27년만에 개막 연기·시즌 축소

MLB 노사협상 결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노사협상 결렬로 27년 만에 개막이 연기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2일(한국시간) MLB 선수노조가 만장일치로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거부, 협상이 결렬됐고, 다음달 1일 2022시즌 정상 개막은 무산됐다고 알렸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시즌 초반 두 차례 시리즈는 취소됐다. 이 경기들은 재편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팀당 6경기가 취소돼 팀당 156경기 체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시즌은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팀당 60경기 시즌이 열리기도 했지만, 노사분규로 메이저리그 시즌이 연기되는 것은 무려 27년만이다.

올해도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단 사치세 한도는 여전히 간극이 크고, 보너스 풀, 최저연봉 등에서도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결렬로 충격이 큰 양자는 아직 다음 협상일을 정하지도 못했다.